

조희성 구세주의 5대공약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IMF 등의 한국경제 위기 중에 한국이 재빨리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세주의 5대 공약 덕분이다. 만약, 경제위기 중에 국민들이 굶주리는 흉년이 왔었다면 발빠른 경제 도약이 가능했겠는가?

4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2 대한민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하겠다.
- 3 대한민국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 5 대한민국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장마란 6.15.경부터 7.15.경까지 지속적으로 오는 비를 말한다. 장마기간은 풍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개 장마기간은 모내기 후 벼가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 장마가 지면 모가 다 죽게 되어 흉년이 들게 된다.



조선일보 8월 23일자 보도 내용

기상청이 내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22일 "앞으로 기상청 예보에서 장마와 장마비, 장마철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돼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장마전선이 물러난 이후에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장마 예보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당일날 우리나라 모든 매스컴 일체는 기상청의 장마 예보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다루었다.

정도령(구세주)의 공약이 실현되었음을 학계와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출처 / 통계청					
연도	재배면적(천ha)	쌀생산량(천톤)	연도	재배면적(천ha)	쌀생산량(천톤)
1980	1,233	3,550	1997	1,052	5,450
1981	1,224	5,062	1998	1,059	5,097
1982	1,188	5,175	1999	1,066	5,263
1983	1,228	5,404	2000	1,072	5,291
1984	1,231	5,682	2001	1,083	5,515
1985	1,237	5,626	2002	1,053	4,927
1986	1,236	5,607	2003	1,016	4,451
1987	1,262	5,493	2004	1,001	5,000
1988	1,260	6,053	2005	980	4,768
1989	1,257	5,898	2006	955	4,680
1990	1,244	5,606	2007	950	4,408
1991	1,208	5,384	2008	936	4,843
1992	1,157	5,331	2009	924	4,916
1993	1,136	4,750	2010	892	4,295
1994	1,103	5,060	2011	854	4,224
1995	1,056	4,695	2012	849	4,006
1996	1,050	5,323	2013	833	4,230
			2014	816	4,241

쌀 생산량 도표(위) 설명

조희성 구세주가 출현하여 5대공약을 발표하여 그 약속이 해마다 지켜졌다. 5대공약 중 풍년들게 하겠다는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 도표는 보여준다.

첫째, 1980년 쌀 재배면적은 1233헥타르, 생산량은 355만톤이었으나, 재배면적이 30% 이상 감소한 2014년(816헥타르)에는 쌀 생산량이 424만톤이나 되어 생산량은 70만톤 이상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쌀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은 구세주께서 풍년들게 권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1980년 이전에는 한 해 풍년이 들면 그 다음 해에 흉년이 들거나 하면서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가는 모양새였으나 구세주가 출현한 다음에는 흉년이 한 해도 지지 않았음을 도표는 보여준다.

셋째, 1992년과 200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쌀 재배면적이 한 자릿수 이상 감소했음에도 쌀 생산량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구세주의 능력으로 일정량 이상의 쌀 생산을 주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세주의 능력으로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조량, 강수량, 병충해, 태풍과 장마 등의 제반 조건이 딱 맞아야 풍년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풍년은 하늘(하느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풍년을 비는 제사를 하늘에 드렸던 것이다.

80년 이전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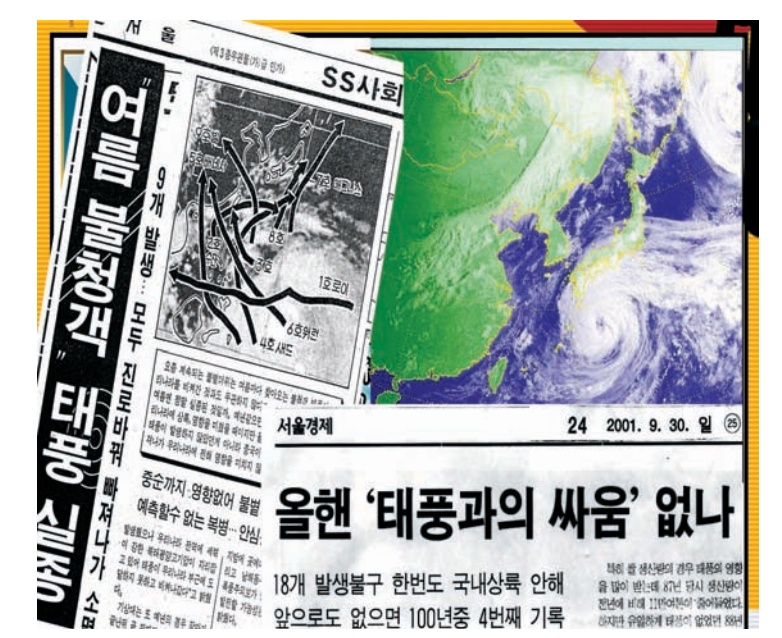
정도령(구세주)께서 출현하신 1981년 이후는 계속 풍년들었다.

이는 자연조건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정도령(구세주)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존재로서 자신이 1981년도에 한 약속, '대한민국에 풍년들게 하겠다' 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이전에는 매년 20여 회 이상 불어오는 태풍으로 흉년이 들기 일수오 수많은 이재민이 속출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 왔다.



1981년도부터는 태풍이 실종이 됐는지 한반도로 불어오지 않거나 우리나라로 불어오다가도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소멸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태풍미아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

1988년 8월 12일자 일간스포츠 신문은 "여름 불청객 태풍 실종"이라는 제목에 '태풍 9개 발생, 모두 진로 바뀌거나 소멸'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태풍을 우리나라에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대 공약의 실현은 전지전능한 구세주임을 증거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부산제단 : (051)863-6307 | 마산제단 : (055)241-1161 | 사천제단 : (055)833-7866 | 광주제단 : (062)524-4555 | 神戶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London : (0208)894-1075 |
| 수원제단 : (031)236-8465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진주제단 : (055)745-9228 | 포항제단 : (054)292-5455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關祭壇 : (0832)32-1988 | Philadelphia : (215)722-2902 |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김해제단 : (055)327-2072 | 울산제단 : (052)291-1849 | 순천제단 : (061)744-8007 | 청주제단 : (043)233-6146 | 久留米祭壇 : (0942)21-4669 | | |
| 평택제단 : (031)652-6438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진해제단 : (055)544-7464 | 정읍제단 : (063)533-7125 | 금마제단 : (063)853-6673 | 岐阜祭壇 : (0584)32-1350 | | |
| 이족제단 : (031)672-6786 | 대구제단 : (053)474-7900 | 영천제단 : (054)333-7121 | 군산제단 : (063)461-3491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디다